



"웃어른 모시고 술을 배워야 점잖은 술을 배운다"

뜻: 어른에게 술 마시는 예절을 제대로 배워야, 나쁜 버릇 없이 점잖게 마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예절 · 윗사람 · 습관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웃	어	른	▽	모	시	고	▽	술	을						
배	워	야	▽	점	잖	은	▽	술	을	▽	배	운	다	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웃	어	른	▽	모	시	고	▽	술	을						
배	워	야	▽	점	잖	은	▽	술	을	▽	배	운	다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ㅇㅇㄹ] [ㄹㅅㄱ] [ㅅㅇ] [ㅂㅇㅇ] [ㅈㅈㅇ] [ㅅㅇ] [ㅂㅇㅈ]

웹에서 보기

